

스페인,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서 1대 0으로 이겨

2010 남아공 이후 16년 만에 정상 올라

골든볼에 로드리·골든부트에 음바페

‘무적함대’ 스페인이 퇴장으로 10명이 뒀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챔피언이 됐다.

스페인은 20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을 0-0으로 비긴 뒤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 꺾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우승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별을 가슴에 새겼다.

또 두 번의 월드컵 결승에서 모두 승리하며 결승전 승률 100%를 자랑했다.

아울러 남자 축구 A매치 38경기 연속 무패행진(29승 9무)을 달리며, 이탈리아(2018~2021년)를 제치고 최다 무패 신기록을 세웠다. 스페인의 마지막 A매치 패배는 2024년 3월 콜롬비아 전 0-1 패배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은 202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에 이어 월드컵까지 제패하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8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골만 내주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썼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 우승)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스페인이 정상에 오르며 유럽의 역대 월드컵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다. 남미는 10회다.

유럽 팀 우승은 2018년 러시아 대회 프랑스 이후 8년 만이기도 하다.

반면 엔소 페르난데스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통산 4번째 우승(1978, 1986, 2022년)에 실패했다.

또 역대 3번째이자 64년 만의 월드컵 2연패도 무산됐다.

‘리스트 맨스’를 꿈꿨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결승에서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메시는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첫 우승한 바 있다.

리오넬 스칼라리도 아르헨티나 사령탑으로는 최초로 월드컵 2연패에 도전

했으나 아쉽게 불발됐다.

스페인의 우승 상금은 5000만 달러(약 745억원)다.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약 492억원)를 받는다.

결승전답게 양 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스페인이 전방 압박으로 아르헨티나를 밀어붙이며 경기 주도권을 서서히 쥐어갔다.

또 우측에 포진한 라인 아말을 활용해 아르헨티나의 측면을 공략했다.

아말은 전반 5분 문전 침투 후 왼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는 경기가 풀리지 않자, 리오넬 메시가 자주 후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로드리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스페인은 전반 39분 미켈 오아르사 발이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왼발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 43분에는 마르크 쿠쿠레야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을 살짝 빔나갔다.

아르헨티나에는 전반 막판 부상 변수까지 생겼다. 전반 41분 옐로카드를 받았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3분 뒤 그리온드에 주저앉았고, 니콜리스 오타멘디와 교체됐다.

전반전 기록에도 양 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스페인은 363회의 패스를 시도했고, 89%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다. 슈팅 숫자도 3개(유효슈팅 2개)였다.

아르헨티나는 198회 패스(성공률 78%)에 그쳤고, 슈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아르헨티나가 먼저 변화를 줬다. 니코 곤살레스 대신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투입하며 중원을 강화했다.

이어 후반 13분에는 나우엘 몰리나를 빼고 곤살로 몬티엘을 내보냈다.

후반 초반 공세에도 골문을 열지 못한 스페인도 교체카드를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17분 오아르사발, 파비안 루이즈를 동시에 불러들이고, 토레스, 페드리를 투입했다.

스페인의 공세가 계속됐으나, 아르헨티나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스페인 선수들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라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비진에 또 부상자가 발생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후반 25분 파콘도 메디나가 대신 들어갔다. 또 동시에 즐리안 시메오네도 조커로 나섰다.

스페인도 후반 30분 알렉스 비에나, 다니 모로가 나오고 니코 윌리엄스, 미켈 메리노가 들어갔다.

잇단 교체에도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스페인은 후반 36분 공격 가담에 나선 아이메릭 라포르테의 헤더가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움츠리며 수비에 무게를 둔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활용해 간간이 역습을 노렸지만, 슈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오�히려 연장전을 염두에 둔 듯 전원이 내려와 수비망을 더 두껍게 유지했다.

후반 막판 경기는 더 과열됐다. 아르헨티나가 모처럼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무산됐고 스페인의 역습도 막혔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엔소 페르난데스가 스페인 파우 쿠바르시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스페인은 후반 추가시간 아말의 왼발 프리킥이 마르티네스 골키퍼 손끝에 걸리며 머리를 감쌌다.

결국 승부는 90분을 지나 연장전으

로 돌입했다.

스페인이 연장 전반 3분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마르티네스를 넘지 못했다.

연장 전반 6분에는 윌리엄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아르헨티나 골망을 흔들었지만, 직전 메리노의 반칙이 지적돼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연장 전반 9분 로드리, 라포르테 대신 마르틴 수비멘디,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했다.

아르헨티나는 3분 뒤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마르코스 세네시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했다.

스페인은 연장 전반 13분 메리노의 헤더가 골문 옆으로 흐르며 득점을 놓쳤다.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골문을 두드리던 스페인이 연장 후반 1분 마침내 골문을 열었다.

페드로 포로가 우측 지역에서 넘긴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윌리엄스가 헤더로 뚫어줬고, 쇠도하던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무려 20번째 슈팅 시도 끝에 터진 스페인의 득점포다.

연장 후반 9분 토레스가 한 차례 더 아르헨티나 골문을 여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로 무산됐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12분에서야

메시의 발끝에서 이날 첫 슈팅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메리노의 머리에 맞고 골문을 외면했다.

또 연장 후반 추가시간 세네시, 시메오네의 슈팅은 모두 골문 밖으로 향했다.

결국 스페인이 토레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은 스페인 주장 로드리가 차지했다. 메시는 실버볼, 윌리안 음바페(프랑스)는 브론즈볼을 받았다.

영플레이어상은 스페인 신예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가, 골든글러브는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차지했다.

페어플레이상은 네덜란드에 돌아갔다.

대회 득점왕인 골든부트는 10골(4도움)을 기록한 음바페가 거머쥐었다. 사상 첫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이다.

한편 이날 결승전을 앞두고는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스페인 테니스 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루이비통 앰버서더 자격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 월드컵 사상 첫 하프타임 쇼에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열창해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12분에서야

메시의 발끝에서 이날 첫 슈팅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메리노의 머리에 맞고 골문을 외면했다.

또 연장 후반 추가시간 세네시, 시메오네의 슈팅은 모두 골문 밖으로 향했다.

결국 스페인이 토레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은 스페인 주장 로드리가 차지했다. 메시는 실버볼, 윌리안 음바페(프랑스)는 브론즈볼을 받았다.

영플레이어상은 스페인 신예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가, 골든글러브는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차지했다.

페어플레이상은 네덜란드에 돌아갔다.

대회 득점왕인 골든부트는 10골(4도움)을 기록한 음바페가 거머쥐었다. 사상 첫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이다.

한편 이날 결승전을 앞두고는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스페인 테니스 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루이비통 앰버서더 자격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 월드컵 사상 첫 하프타임 쇼에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열창해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12분에서야



태권도·K-문화

아우르는 국제축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무주군 일원서 '성황'

제19회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세계 27개국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방문객 등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며 태권도와 K-문화를 아우르는 국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태권도원과 무주군 일원에서 제19회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포 기간에는 태권도 경기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17일에는 태권도 세미나와 태권도 산업박람회가 열렸으며, 18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참가국 소개와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 공연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참가 선수들은 19일까지 품새와 겨루기 세미나를 비롯해 경연대회와 A매치, 가상 태권도 경기 등에 참가하며 기량을 겨뤘다.

또 해외 지도자 네트워크 행사와 K-컬처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일에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해외 참가자 800여 명이 무주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같은 날 밤에는 태권도원 대극장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제10대 고창군의회 개원

「**군민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의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